

제목 Theme: 용서의 축복 The Blessed Man of Forgiveness

본문 Scripture: 마태복음 Matthew 18:21-35 절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일곱 번까지 해야 할까요? Then Peter came and said to Him, "Lord, how often shall my brother sin against me and I forgive him? Up to seven times?"

22.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게 말하니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해야 하느니라 Jesus said to him, "I do not say to you, up to seven times, but up to seventy times seven.

23.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For this reason the kingdom of heaven may be compared to a king who wished to settle accounts with his slaves.

24. 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When he had begun to settle them, one who owed him ten thousand talents was brought to him.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But since he did not have the means to repay, his lord commanded him to be sold, along with his wife and children and all that he had, and repayment to be made.

26.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So the slave fell to the ground and prostrated himself before him, saying, 'Have patience with me and I will repay you everything.'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And the lord of that slave felt compassion and released him and forgave him the debt.

28.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But that slave went out and found one of his fellow slaves who owed him a hundred denarii; and he seized him and began to choke him, saying, 'Pay back what you owe.'

29. 그 동관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겠나이다 하되"So his fellow slave fell to the ground and began to plead with him, saying, 'Have patience with me and I will repay you.'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But he was unwilling and went and threw him in prison until he should pay back what was owed.

31.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비통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So when his fellow slaves saw what had happened, they were deeply grieved and came and reported to their lord all that had happened.

32.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Then summoning him, his lord said to him, 'You wicked slave, I forgave you all that debt because you pleaded with me.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Should you not also have had mercy on your fellow slave, in the same way that I had mercy on you?**'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들게 하니라"**And his lord, moved with anger, handed him over to the torturers until he should repay all that was owed him.**

35.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My heavenly Father will also do the same to you, if each of you does not forgive his brother from your heart."**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천국과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이전에 본 장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시며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것을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3 절**).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셨습니다(**4 절**). 그리고 천국에서 크고 작은 자가 있듯이 지옥에서도 형벌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해 주시면서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 믿음을 소홀히 여겨 영원히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6 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게 하고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스스로 하면 자살이요, 타인으로 하면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7 절**). 그럼 실족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해야 할 사람이나 또는 영접한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 하도록 방해를 하거나 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 트려 못 믿게 한다면 그 결과 무서운 심판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 장 13 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지어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받지 않으려면 그 원인을 제공하는 손이나 발이나 눈이라도 찢어 내버리거나, 뽑아내어 차라리 장애인으로 범죄를 가담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가 영생을 얻는 것이 손과 발 그리고 눈이 범죄를 하여 그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8-9 절**). 그러므로 믿는 자 즉 예수님의 사람인 소자 중에 하나도 업 신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편에 있는 소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얼굴을 뵈며 항상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8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령을 통하여 아바 아버지로서 부르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8 장 15 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절부터 14 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양 **100** 마리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한 마리를 반드시 찾아 온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15 절부터 20 절까지**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머리로 있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18 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땅에서**”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으며, “**매면**”과 “**풀면**”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강조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간절히 간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해 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끝없이 용서해 줘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은 **21 절**에 베드로의 질문 중에 “**형제**”라는 단어 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의 형제인 천국 백성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소자**”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의 죄를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을 **23 절에서 35 절까지**의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1 장 8 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마음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와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번제물 보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의 본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천국은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는 자가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세례요한과 예수님: 마태복음 **3:2** 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니” - 마태복음 **4:17** 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2. 천국열쇠: 마태복음 **16:19** 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3.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7:21** 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 과실을 용서하면: 마태복음 **6:14** 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라”
2.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에베소서 **4:32** 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 주기도문에서: 누가복음 **11:4** 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셋째, 용서 받지 못한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 원망하지 말아야: 야고보서 5:9 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 서 계시니라”
2. 용서하지 않는 자: 야고보서 2:13 절 “금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금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금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3. 믿지 않는 자: 요한복음 3:18 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